

‘목타는 농심’에 가뭄대책비 166억 지원

충남·경기 등 가뭄 심화... 전남 해안가도 ‘초비상’

전국 저수지 저수율 57%... 평년보다 16% 밀돌아

올 들어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남지역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도내 해안가를 비롯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 지역에 가뭄대책비 166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뭄대책비 116억원, 저수지준설 사업비 50억원 등 총 16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현재 농업용수를 공

급하는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73%)을 한참 밀도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남 해안가 일부 지역에서도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모내기 진행률은 전국 평균 70%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분간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내기 이후에도 농업용수 부

족현상이 지속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가뭄대책비 116억 원(국비 93억 원, 지방비 23억 원)을 전남을 비롯한 경기·충남 등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 퇴적도가 많아 계획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수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 사업비 50억 원도 이날 긴급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통합물관리 상황반 회의를 열어 지난 달 29일 경기·충남지역에 배정된 특별교부세 70억 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기간을 단축(통상 57일→27일 이내)하기로 했다.

안전처와 농식품부가 배정한 가뭄대책비는 간이양수장 설치나 관정 개발, 양수호스 설치 등 당장 부족한 농업용수를 추가로 끌어오기 위한 단기 대책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안전처는 이달 초 가뭄 상황에 따라 현장 수요를 파악해 특별교부세를 추가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생활용수 가뭄 상황반을 구성해 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 및 시·군별 비상급수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가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장관 주재로 매주 두 차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종형기자golee@연남뉴스



전남 ‘1어촌1상품’ 운동 본격화

전남어촌특화센터, 수산가공업체 OEM 협약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동구 센터 회의실에서 전남도내 어촌계와 우수수산가공업체와의 ‘1어촌1상품’을 위한 OEM(주문자상표부착) 협약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향후 전남도내 어촌이 각기 대표상품을 보유하는 ‘1어촌1상품’ 갖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영광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임영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원도해양바이오센터 센터장, 이희환 여수 안포 어촌계장, 용양배 해남 송호 어촌계장, 정경태 무안 구로 어촌계장, 김경매 살롬산업(주) 대표, 김미선 (주)아라움 대표, 김영수 (주)아정거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 안포어촌계 등은 특산물 상품 생산에 적당하게 자숙, 건조, 냉동 등 1차 가공해 이를 (주)아라움 등 도내 수산가공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이들 업체는 제품 개발, 디자인·특허 비용 등을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수산가공업체를 만들어 국내·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어촌계는 특산물을 1차 가공함으로써 어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대표상품을 브랜드화해 향후 방면객에 판매하는 등 부가적인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센터는 전망하고 있다. 도내 수산가공업체는 원재료 안정적인 수급, 신상품 개발 및 유통 지원 등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센터는 그동안 도내 수산가공업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피조개, 전복, 물김 등 어촌 특산물의 상품 개발이 가능한 업체를 1차로 걸러낸 뒤 현장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OEM 상품은 시제품 개발, 품질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추산 상품세트로 내놓을 예정이다.

영광의 센터장은 “고차원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의 가공시설 설치보다는 고품질 등 어촌의 실정에 맞는 OEM 방식이 어촌과 도내 수산가공업체를 모두 살리는 길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전남도내 어촌이 각기 하나씩의 대표상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센터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남도내 어촌과 업체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14)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근혜, 12일부터 월·화·목·금 재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5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씩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이달 12일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17일이면 기소된 지 2개월이 접어들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시점에서 한 달이 훌쩍 넘게 된다”며 “증인신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 4회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주 동안 5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주 5차례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주 5회 재판은 피고인의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주 수요일을 비우고 월·화·목·금요일에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갖은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다만 변호인은 당분간만이라도 한 주에 4차례 미만으로 재판해달라는 입장인어서 재판부가 일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 두 번째 소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 혐의 부인...검, 영장 청구 검토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약 5개월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송환 이틀째인 1일에도 오전부터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를 소환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는 전날에 이어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주로 파헤친 부서다. 정씨의 주된 혐의는 특수1부에서, 부수적인 부분은 첨단범죄수사1부(송영태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삼성의 승마 지원 관

련 의혹, 독일 부동산 구매 등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주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덴마크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나 전날 귀국 당시 공방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한 바 있다.

체포 시한인 2일 오전 4시8분까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주요 혐의를 강도 높게 추궁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씨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청구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내년 건보공단 의료수가 2.28%↑...보험료 인상 불가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 병역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조정 기준)는 올해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450원 오른다.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 외래 진료료는 1만2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510원, 환자의 본인 부담액은 3600원에서 100원 오른 3700원이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적정수가-적정부담’을 대신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수가 인상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창립총회 개최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가칭)호남여행업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6월 22일 11:00
2. 장 소 : 5.18 교육관 2층 중강의실
3. 주의사항
 -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 정관(안) 확정동의 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동의 건
 - 임원 선출동의 건
 -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4. 참석대상 : 호남지역에서 일반 및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2017년 6월 2일

가칭)호남여행업사업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송시열
☎ 062)352-909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8.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양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기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어싱 매트셋트 동별 대리점 및 영업인력 모집

1. 대리점 마진 개당 30%(약 100만원)
- 영업노하우 전수
2. 영업인력 판매마진 개당 15%(약 50만원)
- 현금, 신용카드 (세금 부담 없음)

★대리점 및 영업인력은 겸업, 프리랜서, 주부부업 가능
★어싱매트셋트 기능(21세기 자연치유의 최고봉-어싱)

땅과 접지를 통하여 모든병의 근본 원인을 활성산소, 염증제거, 혈액순환, 몸속정전기 제거, 전자파차단 등으로 탁월한 자연치유 및 질병예방기능

※ 점점 질환자들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향후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어싱코리아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32-8 동진빌딩 2층
H. 010-8600-0484
☎ (062) 263-9429